

# 개인도 기업도 신용지수 ‘빨간불’

올해 1분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가릴 것 없이 신용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 역시 신용위험도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37로 전망됐다. 2003년 3분기(44) 이후 최대다. 당시에 카드사태로 11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정도로 가계의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던 시기다. 올해 들면서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한국은행은 “가계의 경우 부채 누증에 따른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 소득 개선 제약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약화 등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능력 약화 원인

설명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권이 예상한 가계와 기업의 종합 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40을 기록했다. 전분기 22(실적치)보다 18포인트나 급등한 수치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 4분기 실적치(44)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가 43을 기록하는 등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기업의 1분기 신용위험지수는 30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맞물려 은행들의 대출태도는 강화되는 추세다. 국내 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1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9로 조사됐다. 이 지수는 대출 태도의 동향과 전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고 밝힌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은행들이 대출 증가를 억제할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2015년 4분기(-9)부터 마이너스를 이어 가는 가운데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13)과 중소기업(-13), 가계 주택(-30), 가계일반(-10) 등 모든 대출 대상자에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담보가치 하락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대출이 더욱 간헐적일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대출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신용카드사를 빼고는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1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2이고 상호금융조합은 -33, 생명보험회사는 -21이다. 국내은행의 대출수요는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출 수요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중소기업(23)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강화될 전망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은 모든 업종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재용 기자

## “농어업 발전에 최선 다할 터”

김준채 농어촌공 전북본부장, 새해 의지 다져

한국농어촌공사 김준채 전북본부장(사직)은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새해 의지를 다졌다. 김 본부장은 “우리 농어촌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해 농어촌의 국민들이 찾고 살고 살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고객을 섬기는 공사,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 국민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의 공사로서 농어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유년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북본부 기존의 주력사업은 더욱 고도화 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공사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는 CEO의 ‘양손잡이 경영’ 철학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본부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본부는 올해 총 4,124억원의 경영목표 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 2,398억원, 농지은행사업 712억원,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사업을 위한 9만8,712ha 관리면적에



183억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578억원,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149억원, 유지관리운영관리사업에 104억원 사업비를 투자한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인한 유통농지 증가, 타작물 식재 등 농지시장의 불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맞춤형 행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농산어촌 행복충전사업’은 3개 분야 행복키움, 행복가꿈, 행복나눔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구간, 6차선 확장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확정·고시한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이 중점 추진노선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됐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JCT 구간은 18.3km로 2021년까지 2,322억원을 투자해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구간이 풀릴 예정이다. 또한 이 구간이 확장되면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화, 전주·원주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물류 및 교통량 급증, 교통병목 현상이 크게 해소되는 등 후방 연쇄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 실시계획중인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할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 등 전복을 찾는 내방객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할 수 있게

## 새만금·혁신도시 개발 활성화 등 연쇄효과 기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복도는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이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호·영남의 길을 열어주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5.2km) 신설은 무주~성주 구간과 성주~무주 구간으로 구분 추진하며 무주~성주 구간이 추가검토노선으로 반영됐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294.4km)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2010년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

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전복도는 2015년 11월 경북도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공동건의와 함께 지난해 6월에도 중부권 7개 시도 상호협력협약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건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설의 필요성과 논리개발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번 건설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반영됐다. 앞으로 전복도는 호영남 교류를 통한 동서 화합과 국토균형발전, 환경해권과 환동해권의 경제, 교통, 물류 중심축 연결과 함께 호·영남 동서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적극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무주~성주 구간

을 성주~대구 구간과 연계해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대통령공약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에서 포함까지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중 익산~장수와 대구~포항 구간은 각각 2007년과 2004년에 개통 운영중이며, 새만금~전주(55.7km) 구간은 현재 실시계획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 할 계획이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삼례~김제 구간 확장은 전복도를 비롯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이며 전복연구원과 공조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에 교통수요, 사업추진 논리개발을 통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등 발 빠르게 적극 대처해 왔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책설명회

전북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과 추진방법 등을 지자체와 상인회에 안내하고 지원사업 홍보와 이해도 제고 및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정책 수요자 중심의 설명회를 위해 자체 별도

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 분야별로 진행한 설명회로는 지방청 중에서 유일하게 실시됐다. 전북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의 하드웨어사업과 특성화시장육성, 청년상인육성, 공동마케팅 등 시장경쟁력신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부문으로 두 카테고리를 나누고,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참석자간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데도 주력했다. /인재용 기자

## 조달청, 위도향 다기능어항 조성공사 등 38건 발주

조달청은 이번주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위도향 다기능어항 조성공사’ 등 총 38건, 1,481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되는 입찰은 전북대학교 수요 ‘뉴실크로드센터 7층 교직원전용식당 구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89%(34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

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다. 이로 인해 전체의 약 39%(인 579억 원 상당)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7건, 300억원이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7건, 578억원 상당이다. /인재용 기자

## 전북중진공, 글로벌 퓨처스클럽 신년간담회

중진공 전북본부는 지난 12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글로벌퓨처스클럽’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전북본부에 새로 부임한 김형수 본부장과 회원사간 상호교류를 시작으로 올해 글로벌 퓨처스클럽 활동계획 논의, 2017년도 중진공 정책자금 및 수출지원사업 안

내로 진행했다. 김형수 전북본부장은 “올해 정부의 수출지원과제는 ‘내수기업의 수출기회’로 전북 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가 전북 대표수출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금융기관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초, 중, 고교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다양한 진로체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부 공고 통해 인증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013년 은행업부 체험을 희망하는 도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도내 최초로 실시했고,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202개교, 641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真心 홍삼주**